

장성 재래감, 국제슬로푸드협회 '맛의 방주' 등재

꽃시·상추감·고종시 등 8종 세계적 보존 가치 인정받아 김한중 군수 "전통음료 남도 단술·장성 집장도 등재 노력"

장성지역 특산물인 재래감이 세계적인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장성군은 지난 11월29일 슬로푸드국제협회 '맛의 방주'에 장성 재래 감이 등재됐다고 밝혔다.
'맛의 방주'는 199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음식문화유산 보호·육성사업이다. 향토음식, 장인 생산물 등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음식이나 식재료, 관련 문화를 '맛의 방주' 목록에 담아 관리한다.
대량생산되는 먹거리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고유한 음식문화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방주'는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배로,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

해 만들었다.
이번에 등재된 장성 재래 감은 장성꽃시·장성상추감·장성비단시·장성쇠포가리·장성고종시·장성월하시·장성수시·장성머시 등 8종이다.
장성꽃시·장성상추감·장성비단시·장성쇠포가리는 타 지역 재래 감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유전적 특징과 이점을 지녔다. 주로 꺾임으로 가공하며 감장아찌·꽃감배추김치·감식초·떡·한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장성지역 230여 농가에서 꺾감을 생산하지만 품종은 대봉시가 80% 이상이고 장성 재래 감은 북하면 일원에서만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장성 재래 감의 '맛의 방주' 등재는 국내 118번째

로 전 세계적으로는 6000여 건이 포함돼 있다.
장성 재래감 고종시 '맛의 방주' 등재에 따라 장성군이 추진하는 남도 단술과 장성 집장의 등재도 주목을 끌고 있다.
'남도 단술'은 쌀밥을 엇기름으로 발효해 만든 전통 음료로 선조들의 갈증과 허기를 달래줬다. 현재도 장성 일부 음식점에선 식사 전후에 단술을 준다.
또 '장성 집장'은 찹쌀을 섞어 만든 고추장이다. 고춧잎, 무청 등 식인 채소로 전체 간을 해 짜지 않으면서 깊은맛이 난다. 조선시대 장성 필암서원에서 만들어 먹다가 차츰 인근 동네로 전파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맛의 방주' 등재는 장성 재래감의 고유성과 가치를 확인한 주목할 만한 성과"라며 "후추 남도 단술, 장성 집장도 '맛의 방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국제슬로푸드협회 '맛의 방주'에 등재된 장성 재래감 고종시.

강진군, 마을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내년 100개소 확대

2026년 모든 경로당에 설치

강진군이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 편의 증진을 위해 접이식 입식 원탁 테이블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경로당에 입식테이블과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300만원을 투입해 읍면마다 1개소씩 총 11개 경로당에 시범 지원했다.
강진군은 내년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보다 1억원을 증액해 관내 경로당 100개소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경로당은 공간이 좁아 평소에는 접어뒀다가 식사 때만 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 원탁 세트 지원했다.
지난 5일 탁자가 지원된 정전면 신기마을 경로당에 강진원 강진군수와 서순선 강진군의회의장, 유경숙 의회 운영위원장이 사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접이식 테이블을 지원받은 신기마을 이원노인회장은 "우리 마을은 하루에 보통 30명 이상 노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줘 우리들이 너무 편하게 쓰게 됐다"면서



강진군이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 편의 증진을 위해 접이식 입식 원탁 테이블을 지원했다.

"노인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주니 오래오래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을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좌식 탁자에서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시나 심지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간식을 드시는

곳도 있어 마음이 아팠다. 군은 내년까지 모든 경로당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더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곳이야말로 보금자리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나주시 '떡깨비' 5000원 쿠폰 하루 세 번 쏜다

공공배달앱 크리스마스 이벤트

나주시가 전남도 공공배달앱 '떡깨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5000원 쿠폰을 제공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떡깨비 앱으로 1만5000원 이상 주문 또는 포장 시 1일 3회에 걸쳐 5000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하루 3번 1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할인쿠폰을 총 1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5000원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배달앱 설치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떡깨비'를 검색하면 된다.
운영팀 나주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떡깨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연말에 이어 새해에도 공공배달앱



나주시 공공배달앱 이벤트 포스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주말의 명화 오케스트라 음악회 어린이·중장년층 1000여명 감동

화순지역 대표 공연 안착

화순군은 지난 6일 화순 하니문화포스츨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화순군 주말의 명화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오케스트라 음악회는 2024년 화순군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의 일환으로 MBC 방영 '주말의 명화' 영화들의 명장면을 대형스크린으로 상영하며 동시에 영화의 OST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로 연주하는 공연이다.
이번 오케스트라 음악회는 '웰컴 투 동막골', '태극기 휘날리며' 같이 중장년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한국 영화와 '겨울 왕국' 등 어린이들도 공감할 수 공연이 총 11곡으로 풍성하게 구성 되어 1000여명의 다양한 관객층이 방문했다.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는 영화의 장면에 맞춰 진행된 오케스트라단의 풍부한 사운드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았으며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실내 공연임에도 '뫼리리'를 같이 운영해 가족 단위 관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겼다.
공연 후에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분장한 배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강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올해로 4회째 개최된 주말의 명화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화순군의 대표 공연으로 안착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채로운 문화 향유를 위한 공연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포스터.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빅3' 이벤트

산타축제 기념 답례품 증정

담양군이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제6회 산타축제를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제 '빅(big)3' 이벤트를 실시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3가지로 구성되며 12월 한 달간 진행된다.
기간 내 담양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추첨을 통해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는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와 함께 11월 모금을 개시한 담양군 지정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에 추가 답례품을 증정하는 '꼭 찍어 기부!'를 운영한다.

해당 이벤트들은 기부 후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라면 자동 응모된다.
이어 축제 기간인 24일과 25일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에 방문한 올해 기부자는 물건을 돌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롤릿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이상의 함평군수와 지역 청년 70여명이 민·관 합동 청년 워크숍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청년 역량강화 민·관 합동 워크숍...명사 특강·정책 간담회

이상의 군수 70여명 의견 청취

함평군이 상반기에 이어 민·관 합동 청년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함평군은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이 지난 10일 함평엑스포공원 금호아시아나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지역

청년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사 초청 특강과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 소통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장과 서영관 도시생활건강 대표가 강사로 나서 기본 소양 교육 등 성공을 위한 마인드 교육과 청년 창업 성공 사례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는 이 군수가 직접 청년들과 즉석에서 질

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지역 청년정책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실제 와닿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며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청년들의 의견을 앞으로의 청년정책에 잘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 연말 기탁 행렬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연말을 맞아 장학금 기탁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제이엔테크(대표 박찬규) 100만원, 이달 4일 새마을지도자장흥군협의회(회장 이병모) 100만원, 이어 6일 (사)한국상륙회 장흥상륙회(회장 박춘석)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들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에 동참해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

해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더 많은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학회 이사장인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후원해 주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며 "기탁해 준 분들의 마음과 뜻을 명심해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